

“식사도 따로 해요”... 부장도 대리도 ‘나홀로 도시락’

구내식당·음식점 등 안가고 혼밥
언택트 확산에 직장 점심 진풍경
직접 도시락 싸거나 편의점 구매
도시락 배달은 일주일새 60% ↑
퇴근 후에도 식당 대신 배달 이용



▲본도시락

#. 직장인 이윤아(29)씨는 요즘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맞닿는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올 때도 있지만, 대개 편의점 도시락이나, 전문점 도시락을 배달시킨다. 식사는 자신의 자리에서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외부 식당에 모여 점심을 사먹기보다는 도시락 등 개인적으로 식사하기를 권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마저 임시 중단한 곳도 있다. 회사내 코

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사육을 폐쇄하는 등 업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 공식 모바일 배달 앱 ‘본오디’에서 지난 달 20일부터 25일까지 본도시락 배달 매출을 집계한 결과 전주 동기간 대비 약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와 접촉을 피하려는 ‘언택트(untact) 소비’가 급증하면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 매출도 늘었다. GS25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말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 구내식당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앞자리를 비우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특히 GS25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나만의 냉장고’를 통해 결제한 도시락 매출은 같은 기간 45.9% 급증했다. 나만의 냉장고는 앱을 통해 도시락을 예약 주문한 뒤 원하는 시간에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같은 기간 CU는 도시락, 김밥, 라면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8%, 23.7%, 17.3% 올랐다. CU 관계자는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감염 예방수칙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들의 수요도 메르스 때

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기 시작했던 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전주 대비 4.3% 올랐고, 2월 마지막 주(2월 24일~3월 1일)에는 전주 대비 7.26% 성장했다.

여의도 소재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 김모(30)씨는 “어쩔 수 없이 출근은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밥먹는 것도 불안해 최근에는 식당에서 테이크아웃해 먹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먹고 있다”며 “다이어트 하는 동료는 미리 원하는 편의점에 주문해두기도 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해 먹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최모(28)씨는 “회사에서 구내식당 운영을 임시 중단해 대부분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거나 도시락 전문점에서 시켜먹고 있다”면서 “퇴근 시에도 오피스텔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공청기 등 환경가전 ‘불티’... TV 등 올림픽 특수 ‘안갯속’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갱신기간도 10개월 연장

코로나19에 가전시장 희비

실내 환경 관리 소비 심리에
청소기·의류관리기 등 인기
영상가전 뚜렷한 성장 없어
글로벌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코로나19가 가전 시장 지형도 바꿔놨다. 환경 가전 판매량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도교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던 TV와 IT 등 시장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관리기 판매량은 전년보다는 45%, 1월보다도 15%나 증가했다.

청소기도 전년보다 약 2%, 전달보다 8%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기청정기도 전월과 비교해 40%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견조한 성적을 보였다.

환경가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환경가전은 연초마다 호황을 누리기는 했다. 그러나 올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LG전자

해에는 예상보다 대기질이 나쁘지 않아 우려가 컸던 상황에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기 역시 전년보다는 약 2%, 전달보다는 8%나 더 많이 판매됐다. 삼성전자 제트 청정스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프로모션이 없었음에도, 판매량이 그만큼 신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덩달아 식기세척기도 전년 대비 300%의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며 코로나19 덕을 봤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등 환경가전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축적해온 인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실내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는 소비자 심리가 환경가전 판매를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교올림픽 특수를 노리던 영상가전 시장은 기대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의미있는 성장세가 없었다.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해 성장 기대가 있었던 IT 기기 역시 코로나19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할 가능성에 업계 위기감이 높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비 10.6%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대체로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중국 현지 업체나 미국 애플 등에 우려가 컸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사전예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 업체 역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추정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전 시장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보다는 미미했다”면서도 “다만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3월달 추이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대구·경북 기업 60%, 주총 일정도 못 잡아

>> 1면 “결산·주총 이어 법인세”서 계속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재택근무 시에도 회사에서 쓰던 프로그램 그대로 노트북으로 할 수 있다”면서 “기준에 거래하던 기업은 사전에 정보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계사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후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업무가 연이어 있다”면서 “다 늦추다 보면 오히려 기업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막 법인세 산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다른 지역도 법인세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과 협의하겠다”면서 “상반기에 연말정산, 원천징수까지 세금신고가 몰려 있어 다소 혼란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도 정부 당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 지역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한 달 늘려줬지만 주총 일정도 못 잡은 기업이 전체 60%다. 또 서울에

기반한 기업들도 주총 장소를 대관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한시적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주주들은 권리 행사를 위해 전염병 감염 위험을 무릅쓸 것”이라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500만 주주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 대상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2020년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여 명 대비 16%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통지를 해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긴급차교육)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의 수강정원을 축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 교육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hys@